

지역사 사장들은 스스로 물러나라

새로운 MBC에 낙하산이 설 자리는 없다

이제 파업이다. 공영방송 MBC를 재건할 마지막 결전이 임박했다. 고영주, 김장겸은 머지않아 물러날 수밖에 없고 공정방송을 가로막아온 사내의 인적, 제도적 걸림돌들은 깨끗이 정리될 것이다. 지역MBC도 사내 민주주의의 새 장을 맞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절박했던 과제이자 모든 구성원들이 한목소리로 꼽은 적폐중의 적폐, 낙하산 관행은 그 최후가 임박했다.

그렇다. 이제 지역MBC는 모든 역량을 모아 낙하산 철폐에 나서려 한다. 직원들을 향해 혀를 내밀며 조롱하는 사장을, 공정방송을 외치는 기자에게 징계로 재갈을 물리는 사장을 몰아내려 한다. 서울 경영진과 정치권에 선물로 자리를 구걸하는 사장들도 더 이상 지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조합원을 종북 좌파로 몰아 징계하고 유배 보낸 전력을 지닌, 그야말로 '언론부역자'들을 용인할 곳은 더더욱 없다.

지난 퇴행의 9년, 사실 지역MBC를 몰락시킨 주범은 사장들이었다. 경영난을 들먹이며 채용을 중단하더니 이제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프로그램을 죽여 나갔다. 지역MBC를 무기력의 나락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구조적인 경영난의 한 축인 '광고배분 왜곡'을 바로 잡으라는 내부의 요구는 여지없이 묵살했다. 단체협약은 서울을 핑계로 협상 자체를 거부했고, '하나의 MBC', 단일노조의 상징인 단일호봉제를 파괴해 MBC를 분열시키려는 구악의 음모에 가담했다. 서울의 지시로 만든 상무이사 자리는 위인설관, 옥상옥이라는 비판 속에 지역사의 경영난만 가중시킬 뿐 철폐 대상 1순위로 손꼽힌다.

지역사의 적폐를 청산할 의지가 없다면, 지금 당장 사퇴하라

우리는 모든 지역MBC 사장들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서울 경영진의 일방적, 폭력적 네트워크 지배 시스템에 기생해 왔음을 인정하라. 지역MBC를 병들게 한 원천적인 문제가 낙하산 관행으로 대표되는 영터리 사장 선임구조에 있음을 부인하지 말라. 이 같은 한계 속에서 그동안 복지부동하며 자리를 지켜오기에 급급했다고 자백하라. 지역 MBC의 공영성과 지역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장 선임제도에서부터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라.

그럴 수 없다면, 스스로 물러나라. 관례적으로 던지는 퇴진 요구가 아니다. 지역MBC는 서울 사장의 수하 역할에 만족하는 고임금 사장들을 더 이상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 고영주, 김장겸 퇴진으로 대표되는 MBC 쇠신의 가치에 당신들의 이름이 곧바로 포함될 것이다. 전체 지역MBC 사장들이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의 표적이 되고 말 것이다.

찬성을 93.2%. 전무후무할 엄청난 동력의 파업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MBC 재건을 위해 끈질기게 저항해온 서울 동료들의 열망과 함께 몰락해 가는 지역MBC를 살려야 한다는 지역 구성원들의 절박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혼연일치된 구성원들의 바람을 막았던 사례는 역사상 없었다. 지역사 사장들에게 고한다. 그 동안 쌓여온 지역사의 적폐를 인정하라. 개혁의지를 공개 천명하라. 그럴 의지가 없다면, 스스로 물러나라.

2017년 8월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강원영동, 광주, 경남,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안동,
여수, 울산, 원주, 전주, 제주, 청주, 춘천, 충주, 포항지부